

## 영진전문대 주문식 교육 '취업 대박'

### 하이닉스에 2년 연속 40명 취업

영진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이 국내외 IT대기업의 취업 대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진전문대학(학장 최달관)은 주문식 교육 협약을 한 하이닉스반도체에 2년 연속 40명을 취업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거 일본 IT기업에 합격시켰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에는 영진전문대에서 주문식 교육을 받은 학생 40명이 인턴과정을 밟고 있다. 업체 측은 오는 12월이면 특별한 합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채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 대학 학생 40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취업한 뒤 2년 연속 같은 수의 인원 모두가 채용된 셈이다.

취업한 학생들의 전공은 반도체공정 기술로 지난 2005년 하이닉스반도체와 주문식 교육 협약을 한 뒤 새로 신설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2년 동안 이수한 수료생은 면접과 함께 회사에서 6개월간의 실습을 거친 뒤 입사하는 형태다. 김정태 하이닉스반도체 제조기술 9팀 과장은 "주문식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은 현장 적응이 빠르고 일처리도 깔끔하다"며 "이론과 실무를 미리 준비해 검증된 인재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 대학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방법으로 취업한 뒤 2년 연속 같은 수의 인원 모두가 채용된 셈이다. 32명이 일본 트랜스스코모스 등 4

개사에 무더기 합격했다. 이번 성과는 대학 측이 지난해부터 일본 취업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를 벌인 결과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대규모 자동차 설계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해당 과정을 개설해 교육생을 집중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교 측은 이와 병행해 일본 트랜스스코모스와 제이텍, 글로칼, 런딕 등 자동차 협력업체들과 주문식 교육 협약을 해 놓았다. 권정희 교수(컴퓨터응용기계계열)는 "일본 기업이 학생들을 면접하고 깜짝 놀라 한 달이 채 안 돼 채용협약을 했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면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에 등재가 예정된 ETRI 연구원들.

# ETRI 맨파워 하늘 찌르다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에 무려 61명 연구원 무더기 등재 예정

ETRI 맨파워가 설립 32년 만에 세계 IT분야 전문가 그룹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며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의 '과학과 공학 10판(2008~2009)'에 37명과 '제25주년 인 더 월드 특집판(2008)'에 24명 등 총 61명의 이름이 오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르퀴스 후즈후에 연구원 이름이 1~2명씩 오를 해도 61명이나 되는 인원이 무더기로 등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등재는 나노융합 센터나 광집적 회로, 디지털 CATV, 유비쿼터스 홈 미들웨어, 암호기술 등 다양한 IT분야에서 ETRI가 세계 IT계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라는 명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등재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과학과 공학 10판에는 기초 핵심 원

천기술개발 분야인 IT융합·부품 연구소에서 최춘기 박사 등 11명을 비롯한 전파방송연구단 정영호 박사 등 7명, 정보보호연구단 진승현 박사 등 5명, 임베디드 SW 연구단 조훈영 박사 등 2명, 광대역통합망연구단 정환석 박사, 이동통신연구단의 이문식 박사 등 총 37명의 이름이 오는 12월 오를 예정이다.

또 '인 더 월드 기념판'에는 텔레메틱스·USN연구단의 조성용 박사 등 총 24명의 연구원이 오는 11월 이름이 오른다.

이 가운데 디지털통신연구단의 이광일 박사 등 16명은 과학과 공학 판과 인 더 월드 양쪽 모두 등재될 예정이고 과학과 공학판 2년 연속 등재자도 디지털콘텐츠연구

단의 서진수 박사 등 16명이나 된다.

여러 군데의 인명사전에 등재된 연구원도 11명이다. 바이오MEMS 연구팀에서 전처리 칩과 환경센서 등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표현봉 박사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IBC·ABI 등 6곳, 광집적회로팀의 한영택 선임연구원, 실시간 멀티미디어연구팀의 김병규 박사, 축위시스템연구팀의 조성용 박사가 각각 5곳에 이름을 올렸다. 또 3곳 이상의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연구원도 11명에 달한다.

이 외에 IT기술전략연구단의 임명환 박사는 이례적으로 경제학 박사로서 또 연승준 박사는 경영학박사로서 과학공학 분야 최고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ETRI 연구원의 경쟁력에 전문가들은 활발한 연구업적 외에도 SCI급 학회지 논문게재나 특허등록, 기술이전 업적 등에서도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문기 원장은 "세계인명사전의 대거 등재야말로 국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대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1899년 설립,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명사전이다. 매년 이곳에서는 정치·경제·사회·종교·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 5만여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산업부문 세계인명사전이나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 등이 부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 "빛고을은 지금 투자인과 북적"

23개 기업과 MOU 814억원 규모 유치

광주시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남 소재 반도체 칩 제조업체 AWLP(대표 심용진) 등 23개 기업과 총 814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일본계 투자기업인 AWLP는 광주에 12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칩 연구개발 및 제조에 나서기로 했으며 충남 논산 소재 하나NH(대표 이창근)는 본사 이전 및 공장 설립에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일본계 투자기업인 디지털큐브(대표 김환기)는 인화용 소재 개발 및 제조에



박광태 광주시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3개 기업 관계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기 군포 소재 대창금형(대표 윤은중)은 사출금형에 60억원, 광주 소재 성진케미칼(대표 정상원)은 66억원을 투입해 전자 부품 분야에 진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MOU 교환이 9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광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개막된 '2007 국제광산업전시회'에 맞춰 광주지역 투자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소개, 광산업투자환경 설명회도 병행 개최했다.

광주=김현식기자@전자신문, hskim@

## "통신두절 이젠 걱정없어요"

KT대구본부, 울릉도 광케이블 이원화

"태풍이 와도 울릉도 인터넷과 통신은 걱정 없어요."

KT대구본부(본부장 노대진)는 울릉도의 통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이원화하는 작업을 오는 7일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울릉도 내 통신광케이블과 해저광케이블이 만나는 지점인 '동구미'에서 울릉도 도동에 위치

한 KT울릉지점까지 5.7km구간을 산악지역 구간과 해안도로 구간으로 이원화하는 공사이다.

그동안 울릉도에는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광케이블이 태풍과 해일이 올 때마다 도로유실과 함께 파손돼 연중 한 차례 이상 통신과 인터넷이 두절됐다.

이때마다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울릉도 주민은 인터넷과 통신을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KT는 현재 새로 개설하는 산악지역 구간을 공사해 대부분 마무리하고 7일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5시간 동안 해안도로 구간과 접속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KT대구본부 관계자는 "작업하는 동안에는 울릉도 내의 인터넷 회선과 일반전화는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며 "울릉도의 통신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

# (주) 리트젠의 UV, MIR, NIR 광응용기술은 귀사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UV, NIR, MIR 광응용 표면처리기술 분야의 장비제조 기술혁신형 기업

UV 노광    고효율 MIR 건조    UV 경화 모듈 / 시스템    SPOT UV    UV/MIR/NIR 펌프

**주요사업분야** UV 경화시스템, UV 오동 장치, EXCIMER 세정시스템, 반도체/FPD/디스플레이공정시스템, SPOT UV 조사기, 초고압 UV 펌프, 고효율 MIR 펌프, NIR 에미터, NIR 소성/열처리 시스템, 고효율 MIR 건조시스템, FPD 제조설비

창의와 혁신으로 귀사의 품질경쟁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LICHTZEN (주) 리트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사동 119-33번지 TEL: (031)419-6700 FAX: (031)419-6226 E-mail: contact@lichtzen.com

www.jeiluv.com    www.lichtzen.com